韓中日 불교 '황금유대'는 계속된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20년 성과와 과제

1993년 中 조박초 거사 제안
1995년 첫 대회… '북경선언'
한중일 삼국불교 교류 견인
상징성 실천으로 이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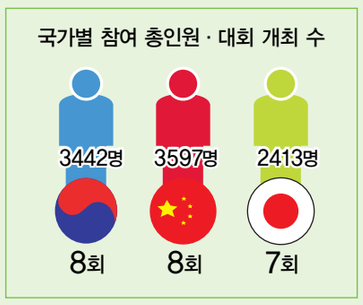
'황금유대(黃金紐帶).' 20여 년을 이어온 한중일 3국 불교 교류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1993년 10월 당시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의 황금유대에 의한 3국 불교도의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상설회의 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한 · 중 · 일 불교가 합의하며 본격적인 3국 불교 교류가 시작됐다.

1995년 5월 21~24일 중국 북경 광제사 일원에서 역사적인 1회 대회가 '우호 · 협력 ·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인정한 종교행사였다. 이는 혁명 원로로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까지 올랐던 실력자 조박초 회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회 대회에서는 북경선언이 채택됐다. 3국 불교계는 선언을 통해 △인재양성 △문화 · 학술 교류 △정보 교환 △상호 참관 방문 △세계불교도들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불교도들이 도덕향상, 환경보호, 생태균형, 자선구제, 전쟁 반대 등의 활동에 관심을 돌리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호소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1996년 9월 서울대회, 1997년 10월 나라-교토 대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종교를 통한 3국의 우호협력 분위기도 고조됐지만, 1998 · 1999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조계종이 내홍을 겪게 되며 대회 개최가 어려웠다. 대신 이 기간 동안은 '한중일 불교교류위원회'를 열어 3국간의 교류 실무를 담당할 조직 강화에 힘을 쏟았다. 조직 정비 이후 열린 2000년 10월 서울서 열린 대회에서는 '신세기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열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였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오랜 역사를 같이한 3국의 불교가 상호 동질감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이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3국 불교계의 상호 수행법 체험단 교류에서도 잘 나타난다. 3국 불교의 수행교류는 10년에 걸친 지도자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쌓인 신뢰가 바탕이 돼 가능했다.

또 '3국 교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교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무엇보다 '세계평화 기원법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나라가 자비와 평화라는 불교적 사명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는 대회로 정착돼가고 있다.

매회 세계의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대회를 열어 공동 합의 선언을 채택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한중일 대회 안에서는 이젠 완전히 정례화 됐다. 하지만 선언문이나 제언들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9월 7일 20차 대회 국제학술강연회에서 박영환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교수가 발표한 제안들은 귀 기울만 하다.

박 교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협력에 대한 제안'을 통해 3국 불교가 주도한 △동아시아 인문 포럼 개최 △청소년 불교문화 캠프 및 대학원생 불교논단 개최 △동아시아 불교공헌상 및 동아시아 불교학술상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활동은 한중일 불교의 학술적인 이미지 확립과 세계 속의 동아시아 불교의 확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 내부 개혁, 학술성과 대중성, 공공성 확보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파견할 조계종긴급구호단 출정식을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네팔 홍수 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 급파

9월 7일 출정식… 묘장 스님 외 5명 구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파견할 조계종긴급구호단 출정식을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부처님 탄생지이기도 한 네팔은 현재 우기 중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팔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프타리, 라우타핫, 마호타리, 시라하, 바리다, 선사리, 반케, 치트완, 모랑, 설라히, 카일라리, 자파 등 19개 구에서 45만5,0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은 현지 NGO 단체인 Ecological Protection Forum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단 파견 및 구호물품 지원을 결정했다.

긴급구호단은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떠라이 지역 라우타하트 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가옥 관파 피해가 많아 임시 거주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긴급구호단은 텐트와 담요, 모기장 등의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추가지원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구호 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는 인도적지원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다.

긴급구호단장 묘장 스님은 "홍수가 발생한 한 달 전만해도 빨리 수습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폭우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지역이 매우 광범위해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면서 "수재민들이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도반HC, 자회사 '도반여행' 설립

(주)대승투어 합작
"불교계 관광사업 활성화"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가 행사기획대행업에 이어 관광사업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도반HC(사장 김용환)는 9월 5일 서울 견지동 두산위브 2층 사무실서 (주)도반여행 사무소 개소 및 자회사 편제식을 개최했다. 도반HC는 종단 차원의 기획여행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주)대승투어와 합작으로 나인성 대표이사를 영입, 도반여행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도반여행은 불교계 여행 및 관광사업 분야서 종단차원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특히 참신한 교계 관광업체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그간 성지순례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불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회일반 관광현장에 진출해 불교적 문화의식을 홍포함으로써 교계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깨달음 향한 수행 · 전법, 종단 발전 근본"

수불 스님, 간화선硏 종책토론회서 조계종지 강조



승가, 과거 구습서 못 벗어나
사찰 · 교단 운영 재가자 맡기고
출가자, 수행 본분사 충실해야

"조계종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 종단이 앞으로 살아나려면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전법이 근본이 돼야 합니다."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이 현 종단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전법이라는 근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은 9월 7일 한국간화선연구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조계종 수행과 전법의 과제' 종책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불 스님은 불자인구 300만 명 이탈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종단 대중 안에 문제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국불교계는 일부 지도자의 비행과 편가르기로 불교계 전체가 욕먹고 있다. 시대 중생을 계도해야 할 승가가 오히려 세속인들로부터 지탄과 걱정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주요 소임자들이 수행과 전법의 본분은 시늉만 하고 이해관계와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전법이 되고 종단과 스님들이 존경과 신뢰를 받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언제까지 기도불공, 천도의식, 문화재관람료로 종단을 유지할 것인지를 지적했다.

70년 전 봉암사 결사 당시 선각자 스님들이 주창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 정신을 강조한 수불 스님은 교단이 바로서기 위해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이나 교단 운영은 과감히 재가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승가는 수행과 전법의 본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조계종이 전승해 온 직지인심 전법도생의 종지와 수행법이 옳은 방향이고 길"이라며 "소납은 이 길이 종단이 사는 길이고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인류에게 기여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책토론회에서는 한국간화선연구소장 미산 스님이 '인공지능시대와 수행 종책에 대해'를,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전법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미산 스님은 종단 차원의 수행 전문연구소 설립 · 운영을 비롯해 수행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 · 관리할 법령 마련, 종단 차원 수행 전문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백 교수 역시 조계종 전법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전법 프로그램 마련 △수행 전법 자료공유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회적 봉사활동 강화 △전법교육 혁신 등을 내놨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 등의 토론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청 내년 예산 7746억원 책정

가야사 복원 22억원 편성… 전년대비 1.8% 감소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내년 예산이 774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7891억 원보다 1.8% 감소한 것이다.

예산은 6669억 원에서 6624억 원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은 1222억 원에서 1122억 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대비 문화재 재정 점유율은 올해 0.2%서 0.18%로 떨어졌다.

문화재청은 내년도 예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전승 · 유지 · 보수 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3373억 원) △4대궁 · 종묘 · 조선왕릉 · 세계유산 등 핵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확대(758억원) △문화재 돌봄사업과 방재시스템 등 맞춤형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407억원) △지역 문화유산 명품브랜드 육성과 고품격 · 맞춤형 문화유산 활용 · 진흥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확대(372억원) 등 4개 부문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또 영 · 호남 가야문화권 유적 고증과 실체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확충, 발굴과 정비 등에 22억 원을 배정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며 "문화재 개방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신성민 기자

포산당 혜인대종사 부도탑 · 비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실, 제주 약천사 회주이셨던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는 부도탑 · 비를 조성하여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하오니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사부대중께서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앙망합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9월 22일(금, 음 8. 3)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은해사 부도전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 연락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운곡 돈관 분향 삼배
포산 문도대표 덕조 구배